

화단 및 분화용 큰괘의비름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Sedum spectabile*
Native to Korea.

L A N D S C A P I N
G



송 정 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8월하순 꽃이 처음 피기 시작할 때의 색깔

늦여름에 꽃눈이 분화되어 초가을부터 피기 시작하는 큰괘의비름, 잎이 다육질이라 건조에 강하기도 하지만 추위나 더위에 강해 전국 어디서든 쉽게 기를 수 있다. 본격적인 가을꽃들이 피기 전의 꽃이 적은 시기에 피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끈다. 꽃에서 은은한 향기도 나 분화용으로도 좋다. 충남 태안 등지에서는 꽃꽂이용으로 밭에서 재배하기도 한다. 큰괘의비름의 꽃색 변화를 보면 여성들의 입술화장을 연상하게 된다. 여고 졸업하고 처음 화장을 할 때는 연한 핑크색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색이 진해지기 때문이다. 꽃이 연분홍색으로 피어서 점차 홍자색을 띠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짙은 커피색으로 변하고 나중에 씨앗을 맺는다.

1. 생태적 특성

큰괘의비름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써 괘의비름, 둥근잎괘의비름, 자주괘의비름 등 몇 종류가 있으며 몸이 수분이 많은 다육식물이다. 괘의비름 종류는 별이 잘 들고 건조한 바위산이나 적박한 곳에 나는 것이 보통이다. 큰괘의비름의 꽃눈은 여름의 장일조건에서 만들어지지만 이후의 꽃눈의 발달이나 개화에는 가을의 단일조건에서 촉진된다. 괘의비름 종류는 건조 적박 조건에서는 버티지만 다습한 조건에서 매우 약하다.



▲ 9월중순 꽃색이 점차 진해져 자주색을 띤다



▲ 10월중순 꽃색이 진한 커피색으로 진해진다

2. 재배기술

가. 번식

큰쟁의비름은 종자나 삽목번식 모두 잘 된다. 씨앗은 가을에 잘 여문 꼬투리를 따서 충실한 종자들을 골라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봄에 뿌리면 잘 발아한다. 줄기 삽목은 4월 이후 새순이나 새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꽃이 진 다음인 9~10월까지 가능하다. 어린 순이나 줄기를 7cm 정도 길이로 잘라 2~3일정도 그늘에 두었다가 깨끗한 모래(버마큐라이트 첨가해도 좋음)에 꽂으면 새 뿌리가 나온다. 5~6월에 포기나누기를 할 수도 있다.



▲ 11월상순 꽃이 지고 암갈색 꼬투리들이 생긴다

나. 재배관리

대부분 토질을 가리지 않지만 벌이 잘 들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심는 것이 무난하다. 화분에 심을 때는 성장기에 1~2회 적심(일정한 높이로 줄기나 가지를 잘라줌)을 해 주면 키는 작아지면서 측지들이 많이 나와 화분의 볼륨감이 생긴다. 정원에 심은 지 2년차가 지나면 포기가 커져 포기 가운데가 부패(무름증세)할 염려가 있다. 이 경우 밀생된 부분은 과감하게 솎아주는 것이 좋다. 심은 해에는 장마전후(6월경) 제초작업을 한번 정도 해주면 되고 이듬해부터는 전체를 덮기 때문에 잡초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다.

정원 및 화단에 기를 때는 부엽퇴비를 뿌려주거나 심기 전에 유기질 비료를 넣어주는 것이 좋으며, 화분에 기를 때는 봄에 분갈이 할 때 유리질 비료를 넣어주거나 분갈이 후 완효성의 덩이비료를 올려둔다.

다. 병충해 방제

병충해는 별 문제가 없지만 너무 과습하면 뿌리와 줄기부분에 연부병이나 뿌리썩음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습하지 않도록 하고 변성하면 미리 좀 솎아 준다. 여름 장마철 습할 때 달팽이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석회분말을 뿌려 준다. 여름 고온 건조기에는 응애 피해도 발생하므로 응애가 처음 보일 때 응애약을 뿌려준다. 